

종교인들이 GCF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com/rev-richard-l-killmer/why-people-of-faith-care-about-the-green-climate-fund_b_8004018.html

2015.8.18, Rev. Richard L. Killmer/ 플로리다 남동부 지역은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때문에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도시)는 이에 대한 적응전략을 개발해왔다. 마이애미 비치 폭풍수 관리 마스터플랜(Stormwater Management Master Plans)은 남동부 지역 첫 해수면 상승 적응 계획이다.

이 도시지역 주민들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도시가 물에 잠기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마이애미 비치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전 세계 최빈국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아시아 연안국으로 해수면이 3 피트 상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IPCC 보고서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그럴 때면 방글라데시의 1/7 이 물에 잠기게 된다.

태평양 군소도서국인 키리바티 공화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국가로 국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바닷물이 지하수면에 침투하면서 100,000 명의 키리바티 국민 대다수가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Scientific American 보고).

다시 말해 이런 국가들 또한 마이애미 비치와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빈국들은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적자원과 자본이 없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이 똑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국이든 그 이외의 지역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이에 대응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이다. 빈국에서 기후변화는 이미 경제 성장, 보건, 물 이용가능성, 식량 생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감축, 즉 부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다.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 현실에 대응하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3 개의 아브라함 종교(Abrahamic religion)가 가진 유사점 중 두 가지가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신앙적인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신자들이 소외된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종교는 또한 신자들이 신의 피조물을 잘 돌보고 보호하라고 한다. 창세기 2 장 15 절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쓰고 있다. 프란시스 교황도 최근 환경에 관한 회칙(encyclical)을 통해서 창세기 구절은 인류가 창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빈국들이 자국의 경제와 부, 기회를 구축하는 데에 힘들게 쌓아온 성과들을 저해하거나 되돌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서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그리고 키리바티와 같은 군소도서국의 취약 지역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후 회복력과 저탄소 발전 증진을 목표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적응 필요를 다루기 위해 설계된 다자 펀드이다.

2009 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서 처음 착안된 GCF 는 기후변화 대응 재정을 최대화 하기 위한 주요 국제 기후 기금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30 개국 이상이 GCF 초기 재원으로 총 102 억 달러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30 억 달러, 캐나다는 3 억 달러를 약속했고, 다른 국가들도 공여국이 되었다.

GCF 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12 월 파리 UN 기후 협상에서 마련될 보편적 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GCF 는 2009 년 선진국들이 2020 년 기후 해결책 마련을 위해 1,000 억 달러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30 억 달러를 약속했고, 의회에 그 중 5 억 달러를 2016 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향후 5 년간 나머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상원은 GCF 에 대한 지원을 표명했지만, 하원의 예산 책정 과정은 더뎠고 있다. 이제는 의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GCF 에 대한 5 억 달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들이 의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올바른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이다.